

우리나라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정량적, 정성적 지표(교육환경 중심)

이택영*, 김장환**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한서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Abstract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in Korea

Lee, Teak-Young*, O.T., M.P.E., Kim, Jang-Hwan**, C.P.O., M.P.H.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Dept. of Prosthetics and Orthotics,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are to assure the quality of the program and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Accreditation serves the public as accredited programs modify their requirements to reflect changes in knowledge and practice generally accepted in the field. To students, accreditation provides an assurance that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an accredited program have been found to be satisfactory, and therefore meet the needs of students. Also it assists in the transfer of credits between institutions, or in the admission of students to advanced degrees through the general acceptance of credits among accredited institutions when the performance of the students has been satisfactory and the credits to be transferred are appropriate to the receiving institution. Th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benefit from accreditation through the stimulus provided for self-evaluation and self-directed program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of program self-evaluation by the review and counsel provided through the accrediting agency. At the same time, this process enhances the reputation of an accredited program because of public regard for accreditation. Lastly, the profession of occupational therapy can be strengthened by contributing to the unity of the professions in an activity directed at improving professional preparation and professional practice.

Key Words : Accreditation, Occupational therapy, Quantitative index, Qualitative index

I. 서론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직무 및 자기계발의 범위, 인력수급 계획, 그리고 작업치료 교육 내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Saboins-Chaffee와 Hussey, 1988). 우리나라 작업치료사의 대부분은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한 작업치료사의 직무는 환자평가, 치료, 교육, 관리, 자기계발이 포함되어 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00). 이렇듯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를 제외한 다른 의료가사 직종과 달리 인간과 직접 접하여 치료하고, 보살피는 직종이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인 대학의 질적·양적 수준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최소 수준을 인정하여 그 결과를 미시적으로는 작업치료학과와 임상분야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무책임성, 무정책성, 무부분별한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신설 남발과 경제원칙에 입각한 대학운영을 앞세운 대다수 대학당국의 학과 신설 요구는 작업치료사의 폭발적인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작업치료 교육의 질적 향상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비단 대학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기준척도가 되는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 학과 신설과 교육기관 인증제 평가의 최소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작업치료 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학사운영을 포함한 대학경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의 반영과 작업치료교육의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

는 데 있다.

II. 본론

1.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

첫째로 작업치료(학)과의 폭발적 팽창에서 찾을 수 있다. 1979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보건학과 재활의학기술학 전공의 개설로 작업치료의 최초 대학교육이 실시되었다. 그 이후 1998년 광양대학에 신설이 되었고 1999년 경북대학교 동남보건대학에 신설되었다(이미자, 1998). 2000년에는 건양대학교, 인제대학교, 한서대학교, 경북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제주한라대학에 신설되어 총 10개교로 작업치료 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을 시작했다. 그 후 2002년 12개교의 신설로 총 24개교(4년제 7개, 3년제 17개교)에 이르렀다. 대학(교)에서의 신설학과 요구는 대학당국의 경제원칙 위주의 실리 행정과 숫자 놀음에 의존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맞아 떨어져 그 위력을 배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작업치료 선진국에서는 학과 신설을 할 때에는 협회 또는 인정기관을 통해서 검증한 후 신설하게 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여과와 조건 없이 신설허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그런 여과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작업치료 인력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대한작업치료협회의 자료에서 24개교의 입학정원에 따르면 2006년도에 925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는 것이다. 이미 2003년에 한 해 360명으로 지난 20여 년간에 배출된 작업치료사의 수와 비슷한 인원이 발생한다.

셋째, 작업치료 교육인력의 질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현재 작업치료(학)과 24개교 교수요원 중 작업치료를 전공하였거나, 작업치료사로 임상 경험이 있는 교수요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대학 당국의 교수요원 선발과 적합한 교수요원의 양적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작업치료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학생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넷째, 임상실습기관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작업치료연맹(이하 WFOT)에서 제시하는 최소 교육기준 안에서도 임상실습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듯이 실습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실습을 담당할 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기관의 증설을 위해서도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인증제 도입과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양질의 작업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의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 높은 작업치료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최소 기준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정하고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수요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정량적·정성적 지표(안)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마련으로 작업치료 교육관련 대학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최소 교육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하드웨어 측면 교육환경에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평가영역 및 평가부분

평가영역을 대학경영 및 재정, 교육, 연구, 학생

표 1. 평가영역 및 평가부분

평가영역	평가부분
1. 대학 경영 및 재정	1.1 경영전략 및 운영
	1.2 대학의 특성화
	1.3 대학재정
2. 교육	2.1 교육목적
	2.2 교육과정 및 방법
	2.3 학사관리
3. 연구	3.1 연구실적
	3.2 연구여건
4. 학생 및 교수	4.1 학생
	4.2 교수
5.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5.1 학생지원체제
	5.2 교육지원체제
	5.3 연구지원체제
	5.4 정보지원체제

및 교수,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로 구분하였으며, 평가부분의 세부사항은 표 1과 같이 세분하였다.

2) 평가부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 대학 경영 및 재정 영역

대학은 경영 목표 및 전략을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타당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그리고 대학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대학은 실현 가능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사회로의 환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외부 감사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한국대

학교교육협의회, 2002).

(2) 교육영역

대학은 적절한 교육목적과 체계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작업치료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특수교사 및 교육교사와 같은 교직과정개설, 전과, 조기 졸업 등 다양한 교육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업치료 교육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과정 편제는 대학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연구자들은 WFOT에서 제시하는 최소교육기준안을 충족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취업 및 유학의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양과 전공의 적절한 교과편제가 되도록 노력한다. WFOT에서 발표한 최소교육기준안에 따르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기초과목이 1,200시간, 전공과목이 800시간이며, 임상실습이 1,000시간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습내용과 기준을 보면, 종일실습(full-time)이 최소한 50% 이상 되어야 하며, 감독자는 자격증이 있는 작업치료사이어야 하며 1:1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실습은 시간은 같은 비율로 하며, 학생은 실습기간 중에 작업치료사의 감독하에 실제 치료가 담당하는 환자 모두를 독립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WFOT, 2002).

WFOT(2002)에서 제시하는 작업치료사 자격 평가기준에서도 작업치료사의 면허 시험은 단순암기 정보보다는 배운 지식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문항들 위주로 구성한다고 안내한 것처럼 작업치료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도 대개가 환자의 문제를 해결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교수방법도 문제해결 위주의 방법으로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며, 강의 평가제도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강의 평가의 시기도 성적확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시작 후 3주차,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직전 등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탐구심을 반영하여야 한다.

표 2. 대학 경영 및 재정 영역의 평가 지표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대학경영 및 재정	1. 경영전략 및 운영	•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체계성 • 기부금 등 재정보호 노력·성과 및 향후 계획
	2. 대학의 특성화	•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특성화 계획의 체계성과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평가 결과의 활용 • 예산편성 내용의 건전성(실험·임상실습비, 도서관입비 규모 등)
	3. 재정확보	• 재학생 1인당 교육비* • 학생등록금 의존도* • 기부금 등 재정보호 노력·성과 및 향후 계획
	4.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제도의 적절성(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 등) • 교직원 인건비와 비율의 적절성

*정량적 평가지표

대학의 수업은 수업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학적관리를 통하여 학문의 연구심과 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교수 및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의 프로그램을 실천가능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기적·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수들에게는 지식의 사회 환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실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는 표 3과 같다.

(3) 연구영역

대학의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과 아울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해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작업치료 학술지는 대한작업치료학회지가 유일한 실정으로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작업치료와 관련된 유사 학술지로도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 국내 학술지 외에도 최근에 시작된 아시아작업치료학회지(As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

표 3. 교육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2.1 교육목적	1. 교육목적의 적절성	•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의 체계성 • 교육목적 내용의 학문적, 사회적 적절성 • 교육목표 내용의 구체성
	1. 교육과정 편제	•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기초과학과목의 적절성 • 작업치료전공과목의 적절성 • 임상실습교육의 적절성
2.2 교육과정 및 방법	2. 교육과정 개선노력	• 교육과정개정 주기의 적절성 • 교육과정개정 과정의 합리성
	3. 교수방법 개발 및 평가	• 교수방법 개발을 위한 대학의 노력 정도 • 교수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교수들의 노력 정도 •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의 적절성 • 강의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2.3 학사관리	1. 수업관리	• 수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 수업관리의 엄정성 • 수업단위 규모의 적절성
	2. 학습평가	• 학습평가 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2.4 사회봉사	1. 교수의 사회봉사	• 최근 3년간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율*
	2. 학생의 사회봉사	• 최근 3년간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율*

*정량적 평가지표

가와 관련하여 SCI(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급 학술지에 논문게재에 대한 대학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보건 계열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연구 분야에 작업치료학은 학문분류에도 들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된 연구 분야 분류에서 의약학 분야에 작업치료학이라는 학문분류가 되었다. 그 하부 분류에는 작업치료 일반, 작업치료 평가, 정신사회작업치료, 직업/직업전작업치료, 근골격계작업치료, 신경계작업치료, 인지/지각작업치료, 수부(손)작업치료, 지역사회작업치료, 발달장애(아동)작업치료, 노인작업치료, 작업과학, 기타 작업치료학으로 세분되어 있다. 학진의 연구 분야 분류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작업치료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수의 연구 활동에도 활력소를 불어넣고 대학원생 및 학생들의 국비 유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진의 연구 분야 등재로 인하여 연구비 수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협력연구로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연구 장비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타 학교와의 공동연구, 재할관련 학과(물리치료학과, 의료보장구학과, 의용공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와의 협력연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교수들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여건을 조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부설 연구소를 개설하여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화 하여야 한다. 재할원 및 특수학교와 같은 연구소의 개설은 작업치료에 대한 지역 내·외의 홍보와 대학의 홍보 및 대학의 사회인지도를

표 4.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3.1 연구실적	1. 논문발표 실적	• 전임교수 1인당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수* • 전임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 • 논문발표 증가율*
	2. 저서 실적	• 전임교수 1인당 저서수(번역 포함)* • 저서 증가율*
	3. 학술대회 발표 실적	• 전임교수 1인당 국내 학술대회발표 논문수* • 전임교수 1인당 국제 학술대회발표 논문수* • 학술대회발표 논문 증가율*
3.2 연구여건	1. 연구비 수혜 실적	• 전임교수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액* • 전임교수 1인당 교내연구비 수혜액*
	2. 연구소의 연구활동	• 부설연구소당 연간 평균 연구비* • 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실적
	3. 연구소의 작업치료 서비스 활동	• 부설연구소의 연간 작업치료 실적 • 부설연구소의 연간 교육 실적(부모교육, 노인교육 등) • 부설연구소의 연간 학생 임상실습 실적 • 부설연구소의 연간 유사기관과의 협력 실적(공동연구 건수, 협력치료 건수, 교차지원 및 교육건수 등)

*정량적 평가지표

높이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교수의 지식과 기술의 사회 환원·사회봉사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학생 임상실습의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표 4).

(4) 학생 및 교수 영역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교육전반에 걸친 모든 것에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만족을 위하여 학습활동에 대한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학생자체활동을 보장하고 대학의 이권을 위하여 조정과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성취도 분야의 평가지표에서(표 5), 임상실습에 대한 재학생의 평판도 평가에 있어서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와의 연구로 통일된 평가표 혹은 설문조사지가 제작되

표 5. 학생 및 교수 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4.1 학생	1. 대학생활 만족도	•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 • 학생자체활동에 대한 만족도 •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 교육 성취도	• 신입생의 성적분포 및 특성 • 임상실습분야에서의 재학생에 대한 평판도 • 졸업생의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률* • 졸업생의 취업률* • 졸업생에 대한 평판도
	3. 교육과정 만족도	• 기초 과학교육 및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작업치료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 •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
4.2 교수	1. 교수구성	• 전임교수 확보율* • 전임교수 중 작업치료 전공자 비율* • 전임교수 중 작업치료사 면허 소유자 비율* • 전임교수의 작업치료 평균임상기간 • 전임교수당 학생수* • 전임교수 구성의 적절성
	2. 교수업무 및 후생복지	• 전임교수 수업부담률* • 전임교수 후생복지의 적절성
	3. 교수개발	• 국내·외 연수 참여(대학지원연수 참여)* • 연구년 제도의 운영
	4. 시간강사 및 조교	• 시간강사 의존률* • 시간강사 관리 및 처우의 적절성 • 조교확보의 적절성* • 조교관리 및 처우의 적절성

*정량적 평가지표

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이 아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전공실습교육은 15명이 초과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WFOT(2002)에서 안내하고 있다.

대학은 우수한 전임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업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현재 실제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작업치료 전공을 한 전임교수 확보 비율과 작업치료사 면허를 보유한 전임교수의 확보 비율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기초의학 교수와 작업치료전공 교수의 적절한 교수 임용이 이루어져 최적화된 대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WFOT(2002)에서 나타낸 작업치료 학과장의 자격 요건에는 WFOT에 의해 인준된 학교의 작업치료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한다는 기준과 최소한 5년 이상 작업치료 임상이나 교육에 종사한 자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수의 수업 부담률은 주당 6시간에서 15시간까지 대학마다 다른 교수의 주당수업시간도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량적 지표가 된다. 교수의 국내/외 연수 참석도 학교에서 지원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지표로 평가되어야 하며, 대학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강사 초빙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추후 학생과 교수의 평가지표 외에도 직원에 대한 평가 지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대학은 학생들에게 적정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상담지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후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학생지원체제에 있어 연간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과 장학금 수혜자 비율 등을 평가

하고 장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에 대한 비율 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장학 설명회와 같은 장학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체제는 교육지원 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강이 시급한 분야이다. 학생 1인당 확보된 교육·연구용 기자재 환산 금액, 학생 1인당 확보된 연간 연평균 기자재 환산 구입비 등이 평가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확보뿐만 아니라 확보된 각종 시설과 설비, 실험실습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유지·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지원체제에 있어 대학은 연구 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시설의 확보를 통해 연구를 촉진하며,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학교간 연구용 장비 협력을 이용한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보지원을 위하여 대학은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처리체제를 구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학생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수, 확보된 도서의 질, 도서의 활용 정도, 전산망 구축현황, 정보지원 예산 등이 평가지표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세부지표는 표 7에 제시하였다.

III. 결 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2년 발족 당시부터 대학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를 대교협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1987년부터는 이전의 대학평가를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인정 결과는 정부가

표 6.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5.1 학생지원체제	1. 장학금	• 연간 등록비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 • 연간 장학금 수혜자 비율* •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
	2. 학생복지시설	• 학생 편의 · 복지시설의 적절성 • 학생 편의 · 복지시설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5.2 교육지원체제	1. 교육지원시설	•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강의실 여건과 활용 • 실험실습실 확보 정도(소아 · 성인치료실, 일상생활훈련실, 보조기계작실, Work-hardening clinic 등) • 기타 교육지원시설의 적절성 (강의실 외 학습 · 토론 공간, 체육시설 등) • 시설의 관리 및 활용실태
	2. 실험실습기자재	• 실험실습 설비 및 기자재 확보 상태* (신경학적 · 정형외과적 평가도구, 치료 기기, 일상생활훈련 및 평가도구, 직업훈련 및 평가도구 등) •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체계의 적절성 및 활용
5.3 연구지원체제	1. 연구지원 조직과 운용	• 연구지원 조직의 적절성 • 연간 연구지원 조직의 활동실적
	2. 연구용 시설의 확보와 운용	• 연구용 기자재 확보 상태 • 연구용 기자재 활용 실태 • 연구용 기자재 관리 상태 • 미확보 기자재 확보 대책 • 고가 기자재 확보 및 활용 대책
	3. 연구결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지원	• 연간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에 대한 지원 건수 • 연간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에 대한 지원 총액
5.4 정보지원체제	1. 도서 및 정보자료의 확보와 활용	• 재학생 1인당 전공 도서 및 비도서 자료수* • 도서의 활용 정도 • 전공(학과)당 정기간행 학술지 구독 종수* •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활용 • 대학간 정보자료 공유체제의 적절성

*정량적 평가지표

대학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정적 지원과 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작업치료교육은 1979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보건학과 재활의학기술학 전공으로 시작되어 한국의 작업치료교육을 이끌어 왔다. 최근 3년간 3년제 6개교, 4년제 5개교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 을 한 해에 3년제 10개교, 4년제 2개교가 신설되어 폭발적인 증가 추세이다. 그러므로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정량적, 정성적 지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게 작업치료(학)과의 신설에 있어 정확한 판단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정량적, 정성적 지표의 마련으로 개별 대학들의 교육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대학간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유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내 작업치료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고양시키고, 교육 소비자에게는 한 단계 상승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을 다루는 작업치료 교육의 현장성이 고려되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에 맞고, 특색 있는 한국 작업치료교육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는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한 제시안이므로 앞의 내용들 외에도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이미자. 한국작업치료의 현황과 대안.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98;93-10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 종합평가 편람. 2002.
-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작업치료사 직무 분석. 2000.
- Saboins-Chaffee B, Hussey S. Introduction to Occupational Therapy. 2nd ed. St Louis, Mosby, 1988.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WFOT). Revised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2002.